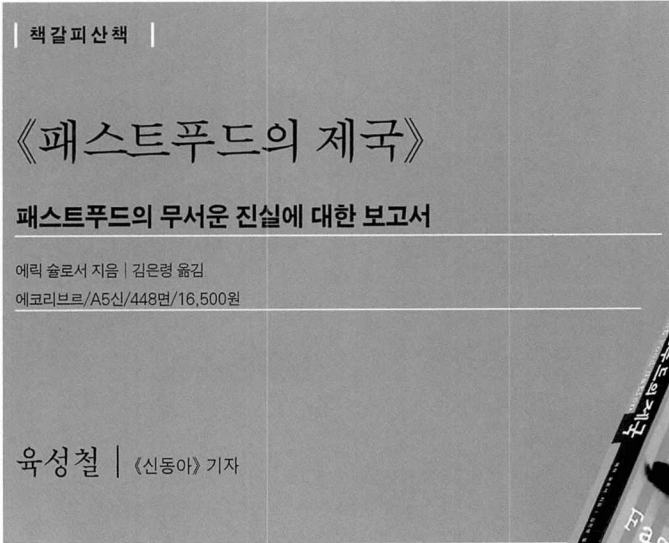


패스트푸드는 간편한 주문과 고민이 필요없는 메뉴, 달콤함과 독특한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업용 음식재료를 사용하고 인부들의 품삯을 갈취하는 소비자본주의의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이 책은 패스트푸드기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맛의 비밀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낱알이 파헤치고 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하찮은 풀뿌리에서 민족의 숨결을 찾고 옛 사찰에 나뉘는 돌조각을 매만지며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발견했던 유홍준의 역작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비평사)가 던진 화두는 소비자본주의의 첨병 구실을 떠맡고 있는 패스트푸드의 세계에서 어김없이 관찰되고 있다. 새삼 동서고금을 꿰뚫고 흐르는 조상들의 선견지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의 유혹

화려한 조명과 간편한 주문, 다양한 부가상품과 고민이 필요 없는 메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입맛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식품... 패스트푸드는 '대량생산 대량분배'라는 포디즘적 세계체계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다. 5시간마다 새로운 점포를 만들어내는 맥도널드의 마케팅과 30초마다 자동차를 출고하는 GM자동차의 생산라인은 '종목' 만 다를 뿐, '죽보' 로는 그리 멀지 않은 친척이다.

햄과 샐러드 사이에 보일 듯 말 듯 끼워져 있는 치즈, 밑은 넓적하게 깔고, 위는 둥그렇게 덮은 빵 조각과 듽성듬성 박힌 깨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햄버거의 겉모습이다. 치킨은 또 어떨까. 노르스름하게 튀겨진 KFC의 닭다리는 호프집의 양념통닭이나 장작구이와는 다른 독특한 맛을 낸다. 양념 삼아 한봉투씩 챙기는 감자튀김도 낱알이나 달콤함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구운 감자에 비길 바가 아니다.

하지만 덩석 집어먹기 전에 조금만 머리를 굴려 패스트푸드의 내용물을 뜯어볼 일이다. 에릭 슬로서의 《패스트푸드의 제국》은 패스트푸드의 무서운 진실에 대한 보고서다. 2년여에 걸친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통해 이 책은 패스트푸드기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맛의 비밀은 무엇인지, 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패스트푸드기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낱알이 파헤치고 있다. 그동안 햄과 치즈와 샐러드의 '고향'은 어디며, 핫윙이나 너겟을 만들기 위해 몇 마리의 닭이 어떻게 뒤섞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었다. 어디 그 뿐인가. 감자에는 어떤 맹독성 농약이 투입됐으며, 옥수수에는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패스트푸드는 간편함과 화려함의 뒷면에 그 모두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산업의 어두운 이면 파헤쳐

일본은 세계적인 장수국가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비만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쌀과 생선, 콩 등으로 짜여진 일본의 전통식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깔끔함을 자랑했다. 그런 일본에서 비만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시기는 묘하게도 일본인들이 전통식단과 결별하고 패스트푸드를 찾기 시작한 시점이다. 비록 물들은 없지만, 패스트푸드는 일본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양평 해장국'은 한국에서 두번째로 맛있는 해장식품이다. 그렇다면 최고는? 당연히 어머니가 끓여준 '손맛이 철철 넘치는' 수제품이다. 똑같은 김치도 배추와 양념과 향아리에 따라 다른 맛을 풍기는 것이 한국 음식의 특징이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에서는 이런 맛을 찾을 수 없다. 5만개의 메뉴얼에 의해 기계처럼 돌아가는 맥도널드 시스템은 한국인들의 감별 능력을 철저히 마비시켰다. '신도불이'는 그저 구호로서 존재할 뿐이다.

소비자본주의는 당대 최강이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집단 테러와 치밀한 법적 공세도 그들의 막강화력을 저지하지 못했다. 최선의 선택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소비자 의식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패스트푸드 기업들이 유기농법을 도입하고 무공해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로 햄버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에 'Junk Food' (쓰레기 식품)와 장난감을 쥐어주기에 앞서 소비자본주의가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음식문화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육성철 기자는 연세대 사회학과와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석사논문으로 《노숙자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썼다. 현재 《신동아》에 근무하고 있다.